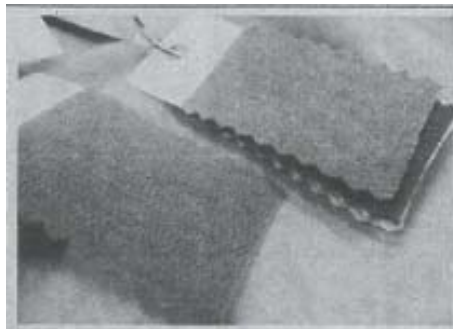


양모 후염 멜란지

일본 SOTOH사는 양모 100 % 원단에 색의 농담이나 멜란지색을 후염을 통해 표현하는 기술인 'Alicemare'를 개발하였다. 또한 방모직물의 축융·기모가공으로 유명한 'Charm'의 편성물 대체제품도 개발하였다.

기존에 양모 100 % 원단에 색의 농담이나 멜란지 색을 표현하는 경우, 톱(top) 염색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Alicemare'는 후염으로 이러한 색상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직물 및 편성물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원단 제조 방법, 염료 선정, 염색처리 등의 공정연구를 통해 상품화되었다. 현재 대형 어패럴 메이커와 협력하여 15년 추동용으로 시험 판매중에 있다. 또한 마 100 % 원단 제품도 개발중에 있다. 'Charm' 가공은 수모(동물털) 혼방직물이 가진 느낌을 극한까지 끌어낸 축융·기모가공이다. 털이 아름답고, 사용하여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편성물에서의 적용은 원단 신축으로 인해 어려웠지만, 원단의 움직임 제어하는 기술을 확립하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편성물에서도 직물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착용시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아름다운 털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015년 추동용 시험판매 제품

♠ 섬유뉴스(2015. 2. 10)